

삼국사기, 고려사회의 삼국 역사 인식

옥재원, 113호 고려 I 실 18:00~18:30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고 그 현상을 겪으면서 저마다 생각하고 판단할 때, 또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고 기록할 때, 사회구조와 인적 관계로부터 제법 큰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개인의 가치관은 곧 사회적으로 형성된 인식이자 태도이며, 이를 대표하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역사관일 것입니다.

역사관은 기록물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역사기록이라면, 개인적으로 쓰였더라도 기록자와 연결된 구조와 관계의 영향이 기저에 이입되고 이와 긴밀한 인식과 태도의 서사가 표면으로 명문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쓰인 역사서라면, 사람과 사회가 함께 쓴 기록, 그 시대가 떠올린 인식이라고 여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45년 완성된 『삼국사기三國史記』가 그렇습니다. 이 역사서는 흔히 ‘김부식金富軾의 성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책사업’으로 여러 집필진이 수찬한 역사서입니다. 그러니 시대를 절감하며 편찬 배경, 목적, 성격을 따지고 내용을 읽으며 풀어야, 기록물의 온전한 의미나 가치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려가 쓴 삼국의 역사는 신라·고구려·백제 각국의 본기와 연표·잡기·열전 체계의 50권으로 묶여 800장의 목판에 새겨졌습니다. 본기는 건국 순서대로 각국의 연대기가, 연표는 간지를 기준 삼아 중국과 삼국의 사실들이, 잡지는 제사·음악·색복·거기·기용·옥사·지리·직관의 사항들이 나뉘어 기록되었습니다.

열전은 삼국 인물 86명의 행적을 수록하였는데, 이 가운데 주요 인물 51명은 단독으로, 25명은 덧붙여, 10명은 이름만 썼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신라 사람들이 38명에 이르러, 『삼국사기』가 다분히 ‘신라 중심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12세기 중엽 고려의 사회상황, 인문환경과 함께 집필진의 과거 인식과 태도를 면밀하게 살피고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책머리에서 자국 역사기록의 진흥, 지식인들의 역사인식 환기, 유교 가치의 고양 등을 목적으로 편찬된 역사서라고 알립니다. 고려실에서 여러 전시품을 관람하며 그 역사를 조명하고, 고려가 쓴 『삼국사기』를 직접 만나 시대의 목적도 연상하면서, 『삼국사기』의 의미와 가치를 직접 재평가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림1. 고려실 『삼국유사』

특별전<외규장각 의례, 그 고귀함의 의미>(11)

- 조선왕조의례의 체재와 내용 구성 -

임혜경,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조선시대에는 중요한 국가 의례나 행사가 끝나면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의례儀軌를 제작하였습니다. 의례 제작만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 의례도감儀軌都監을 설치하기도 하고, 규장각奎章閣 등 기존의 상설 조직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의례는 행사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왕에게 올린 문서나, 국왕의 명령을 적은 문서, 다른 관청과 주고받은 문서 등을 모아 일정한 체재를 갖추어 정리한 후 그대로 베껴서 만듭니다. 대체로 담당자 명단인 ‘좌목座目’, 왕의 명령을 적은 ‘전교傳敎’, 국왕과 신하들이 주고받은 말을 적은 ‘연설筵說’, 행사를 주관한 관청이 다른 관청과 주고받은 문서를 모은 ‘이문移文’, ‘내관來觀’, ‘감결甘結’, 구체적인 의례 절차를 적은 ‘의주儀註’가 중심이 되고, 행사의 내용에 따라 관련 조직의 문서나 물품 목록 등을 따로 정리하여 넣기도 합니다.

전시실에서 직접 펼쳐볼 수 있는 『기사진표리진찬의례』(1809년)에는 진찬進饌(왕실 잔치) 때 불렀던 악장樂章의 가사와 잔치의 주인공인 혜경궁惠慶宮 홍씨에게 올린 축하의 글, 잔칫상에 올린 음식의 종류, 잔치에 초대된 손님 명단 등 진찬의례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사진표리진찬의례』의 구성

	항목	내용		항목	내용
1	목록目錄	항목별 분류 목록	9	계사啓辭	주관 관청에서 국왕에게 올린 문서
2	택일擇日	행사 개최 날짜	10	이문移文	주관 관청에서 다른 관청에 보낸 문서
3	좌목座目	담당 관리들의 명단	11	내관來關	다른 관청에서 주관 관청에 보낸 문서
4	도식圖式	행사 장면 및 물품 그림	12	감결甘結	주관 관청이 하급 부서에 지시한 문서
5	전교傳敎	행사 관련 국왕의 명령	13	찬품饌品 기용器用 배설排設 의장儀仗	행사 때 사용한 음식·물품 목록
6	연설筵說	국왕과 신하들의 논의 내용			
7	악장樂章 치사致詞 전문箋文	노래가사, 축하글 등 행사 관련 각종 글	14	참반參班 의위儀衛 공령工伶	행사 참여자 명단
8	의주儀註	행사 준비 및 의식 절차	15	상전賞典	행사 종료 후의 시상 내역

전통장황과 현대장황

장연희, 201호 서화 I 실, 19:00~19:30

1. 장황 형식

(1) 축장(軸裝)

- 종류: 족자, 두루마리
- 형식: 축을 사용하여 그림을 마는 형식으로 보관
- 장점: 그림이 공기와 접촉하지 않아 산화가 방지됨.
온·습도에 유동적이며 보관이 용이하며함
- 단점: 마는 데서 오는 물리적 손상(긁임, 박락)이 유발됨/전문가의 핸들링이 필요

※ 족자

	
전통장황	현대장황

※ 두루마리

전통장황	
현대장황	

(2) 정장(幀裝)

- 종류: 병풍, 액자
- 형식: 나무 속 틀 위에 종이를 여러 겹 붙인 후 그림을 접착한 것
- 장점: 전문가가 아니어도 다루기가 쉽다
- 단점: 공기와의 접촉으로 산화를 촉진함.

그림이 틀에 부착되어 온·습도 변화에 따른 손상 유발

※ 병풍

	
전통장황	현대장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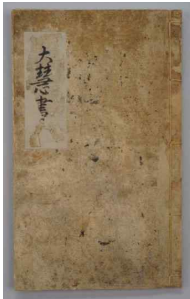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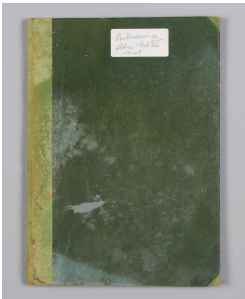
※ 액자

	
전통장황	현대장황

(3) 책자장(冊子裝)

- 절첩, 포배장, 호접장, 포배장, 선장, 양장

※ 책

	
전통장황	현대장황

사비백제의 건축장식

정현, 106호 백제실 18:00~18:30

국립중앙박물관 백제실에 전시된 주요 문화재를 살펴보며 백제 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삼국사기』는 백제 문화를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儉而不陋 華而不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백제의 문화재는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한 소박한 그릇과 건물을 장식한 기와였습니다.

지붕의 용마루 양 끝에 올린 치미는 건물의 아름다움을 배가시키는 동시에 건물의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왕흥사 터에서 출토된 치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온전한 한 쌍의 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왕흥사는 백제의 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 지은 왕실사찰로, 이 치미는 금당과 탑의 동편에 위치한 동건물지의 지붕을 장식했습니다. 백제의 기와장들은 크고 무거운 치미를 빚고 굽기 위해 상부와 하부로 분리하여 제작했습니다.

백제의 연꽃무늬 수막새는 화려한 장식을 부가하는 대신 연꽃을 입체적으로 묘사하여 고구려·신라 연꽃무늬 수막새에 비해 훨씬 더 단아하고 고급스러운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백제 웅진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제작한 연꽃무늬 수막새는 사비시기에 이르러 바람개비무늬 또는 민무늬로 다양해집니다.

부여 외리 절터에서 발견한 무늬벽돌은 백제의 수준 높은 기와 제작 기술과 예술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외리 절터 바닥에서 총 8종류의 무늬 벽돌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늬벽돌에는 백제의 아름다운 자연과 상상 속 동물인 용과 봉황, 그리고 귀신의 얼굴 등이 입체적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그 중 산수무늬벽돌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해외에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전시에 가장 많이 출품된 문화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림1. 왕흥사 절터 치미



그림2. 백제 연꽃무늬 수막새



그림3. 산수무늬 벽돌